

영어발음교육과 영어음성학/음운론의 이해

이재영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영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장을 내 놓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 상황이다. 여러 주장들 중에는 아무런 구체적 논증 없이 그저 영어 교육은 세계 조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영어를 우리 나라의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아주 다양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 주장에서 벗어나 영어를 교육시킬 때 어떠한 것들을 우선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어가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또는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안 된다거나 하는 논쟁보다는 영어를 가르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훨씬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에 대한 많은 논의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나라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다 동의하고 그리고 설령 영어가 공용어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어를 가르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기본적인 문제는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를 가르칠 때 무엇보다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 교육을 포기하자는 것과도 같은 말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영어 교육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전제는 우리는 모국어(mother tongue)가 아닌 외국어(foreign language)로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영어 교육에서 어떠한 점을 가장 중시하여

야 하며 무엇을 우선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다 이해하는 바와 같이, 언어는 의사 소통의 수단이다. 인간이 의사 소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손짓, 발짓, 눈짓을 한다든지, 옛날 전쟁터에서와 같이 깃발이나 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호루라기를 이용한다든지, 경적소리를 낸다든지 해서 인간은 의사를 전달하고 그 전달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 전달 수단들은 변별력(distinctiveness), 규칙성(regularity), 예측성(predictability), 그리고 보편성(universality) 등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 수단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방해 받을 수 있다. 그런 반면, 인간의 음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즉 말소리는 변별력이 뛰어나며,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하며, 보통의 인간들이 모두 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보편적이다. 따라서, 인간들은 음성기관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말소리를 의사 소통의 가장 주된 수단으로 이용한다.

의사 소통에 실패하는 것은 언어의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사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 소통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어적인 측면에서의 소통일 것이다. 많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오랜 기간동안 영어를 배워도 영어 원어민(native speaker)을 만나면 전혀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인이 발화하는 소리나 단어나 구 또는 문장을 영어 원어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영어 원어민이 행하는 소리나 단어, 구, 문장을 한국인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한국인이 영어 원어민과의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인의 영어발음 습득과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인 영어를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해야 단기간 교육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실용적인' 질문에 대해서, 필자는 영어발음에 대한 교육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하면 영어교육 현장에서 영어발음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어발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효과적인 영어발음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발음교육은 영어 교육의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영어발음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발음과 관계되는 이론적, 실제적 측면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II. 영어발음교육의 영역과 목표

영어발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영역으로는 분절음(segment), 강세(stress), 그리고 억양(intonation) 등 세 영역이 있다. 분절음은 단어를 형성하는 음(sound) 즉, 자음과 모음을 의미하고, 강세는 단어와 구에서 일어나는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간의 교체현상(alternation), 완전 모음(full vowel)과 약화된 모음(reduced vowel)간의 교체현상 그리고 한 단어에서 가장 두드러진(prominent) 강세의 위치 결정 등과 같이 초분절음적 자질(suprasegmental feature)과 관계되는 현상들을 총망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억양은 문장에서 일어나는 피치(pitch)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 영역에서 보여주는 패턴을 예측하고(predict), 그 예측된 것을 제대로 생성해내고(produce), 원어민이 말하는 분절음, 강세, 억양을 지각할(perceive)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능통한 영어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예측(prediction)능력은 발화하기 전에 단어나 구에서 어떤 음이 어떻게 발음되고, 어떠한 음절에 강세가 오며, 그리고 어떠한 억양 패턴이 주어진 언어 상황에 적절한가 하는 것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음에 관한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되는 규칙(rule)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생성(production)능력은 분절음이나 단어, 구, 문장을 제대로 발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발화에 대한 노력은 말소리를 낼 때 청취자(hearer)인 상대방이 그 발화내용을 잘 이해할(intelligible)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각(perception)능력은 상대방인 화자(speaker)가 발화하는 분절음, 단어, 구, 그리고 문장을 청취자인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발음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지 어떤 음이 어떻게 발음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음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생성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어떤 음을 제대로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발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 *beast*와 *best*에서, 전자의 경우는 긴장모음 [i]를 가지고 후자의 경우는 이완모음 [ɛ]을 갖는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비록 각 모음들을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발음을 하지 못할 것이다. 즉, 전자의 단어를 [best]로 발음하고 후자를 [bɛst]로 잘못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예측능력은 있으나, 생성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제대로 된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된다. *beast*에서 모음의 음가가 [i]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생성해내지 못하고 [ɛ]로 밖에 생성해내지 못하면, *beast*를 [bɛst]로 잘못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측능력과 생성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생성능력과 지각능력도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이다. 말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말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한 어떤 말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은 그 말소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는 언어교육 이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영어발음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성능력과 지각능력의 향상은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고 예측능력의 향상은 영어음운론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예측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관계되는 음운규칙(phonological rule)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올바른 영어발음교육을 위해서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논변해보고자 한다.

III. 영어 분절음과 영어음성학(English Phonetics)

음성학은 인간이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말소리(speech sound)를 다루는 학문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음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말소리이다. 말소리는 변별력이 뛰어나며,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하며, 보통의 인간들이 모두 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보편적이다. 따라서, 인간들은 음성기관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말소리를 가장 주된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말소리에 대한 연구는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언어학(linguistics)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음성학은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입 밖으로 나오며, 입 밖으로 나온 말소리가 청자(hearer)의 귀에까지 어떻게 전달되며, 또한 그 전달된 소리를 어떻게 청자가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입 밖으로 나오는가를 주로 연구하는 분야를 조음 음성학(articulatory phonetics)이라 하고, 소리가 화자의 입에서 나와 음파(sound wave)의 형태로 청자의 귀로 전달되는데, 이 음파가 청자의 귀로 전달되는 과정과 음파의 여러 양상을 다루는 것이 음향 음성학(acoustic phonetics 또는 acoustics)이다. 그리고, 음파가 청자의 귀에서 뇌로 전달되어 이해되는(decoding)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청각 음성학(auditory phonetics)이다. 이와 같이, 음성학은 말소리에 관련된 실제적인 것을 다루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¹⁾

음성학은 언어학의 다른 분야들과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관련이 있는 분야는 음운론(phonology)이다. 음성학이 소리의 물리적인(physical) 측면을 정확히 기술하고, 세밀히 분류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반해서, 음운론은 소리의 체계(system)와 기능(function)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음성학에서는 음을 연구할 때 그 음이 가지는 맥락적(context)의 미나 기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음운론에서는 전체적인 체계에서 각 음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다른 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을 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성학과 음운론을 명쾌하게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음성학적 지식이 없으면 음운론 연구는 불가능하며, 음운론 연구가 없으면 음성학적 기술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편적인 측면에서 음성학과 음운론이 영어라는 개별 언어에 적용될 때, 그것을 각각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일반 음성학과 음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영어의 말소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영어음성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이 말소리를 만든다는 것은 허파(lungs)로부터 시작되는 공기의 흐름(airstream)을 적절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변형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1) 앞으로 다른 설명이 없으면, '소리'는 '말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또한 소리라는 용어 대신에 '음'을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Ladefoged 1993). 허파로부터 시작된 공기는 인강(pharyngeal cavity), 구강(oral cavity), 그리고 비강(nasal cavity) 등 세 개의 통로(cavity)를 거쳐서 밖으로 나온다. 이러한 세 개의 통로를 통해 나오는 공기는 그 흐름이 여러 곳에서 변형이 된다.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변형시키는 기관을 조음기관(articulator)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성대(vocal cords), 설근(tongue root), 설체(tongue body), 설단(tongue blade), 입술(lips), 그리고 연구개(soft palate) 등 여섯 개의 조음기관이 이용된다. 이 기관들의 활동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음이 만들어진다.

먼저, 자음의 경우 성대가 울림상태에 있으면 유성음(voiced sound; b, d, g, v, ð, z, ʒ, dʒ) 등이 만들어지고 성대가 울리지 않을 경우에 무성음(voiceless sounds; p, t, k, f, θ, s, ʃ, tʃ) 등이 만들어진다. 다음, 모음의 경우 설근의 역할에 따라 이완음(lax vowels; i, u)과 긴장음(tense vowels; i, u)이 생성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설근이 인강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경우에 만들어지고 후자의 모음은 설근이 앞쪽으로 움직일 때 만들어진다. 셋째, 설체를 두분으로 나누었을 때 앞 부분이 움직일 때 나오는 소리가 전설모음(front vowels; i, e, æ)과 반모음[y] 등이고 설체의 뒷 부분이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소리가 후설모음(back vowels; u, o, ɔ, a)과 반모음[w] 그리고 연구개음(velars; k, g) 등이다. 넷째, 혀의 끝부분(설단)도 공기의 흐름을 변형시키는 조음기관인데, 이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로는 치경음(alveolars; t, d, s, z 등), 치경 연구개음(alveo-palatals) (ʃ, tʃ, ʒ, dʒ 등), 치간음(inter-dentals) (예: θ, ð) 등이 있다. 다섯째, 입술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지는 소리는 순음(labials; p, b, f, v)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가 내려오는가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비음(nasals; m, n, ŋ)과 구강음(oral sounds; p, t, k 등)이 각각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조음기관의 활동에 의해서 각기 구별되는 소리를 분절음(segment)이라 말한다. 예를 들어, 'top'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공기흐름이 세 군데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공기흐름이 변화되어서 나오는 소리가 /t/이며, 설체의 뒷 부분이 낮아져서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서 발생하는 소리가 /a/이며, 아랫 앞술과 윗 앞술이 맞닿아서 공기의 흐름이 변하게 되어서 /p/가 발생한다. 이때 /t/와 /a/, 그리고 /p/가 분절음인 것이다.

각 분절음은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top/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음인 /t/ 대신에 순음(labial sound)인 /p/를 대체시키면, 전체 단어의 뜻(meaning)이 달라진다:

t	o	p
---	---	---

 대

p	o	p
---	---	---

. 이

때 이 두 단어를 최소 대립어(minimal pair)라고 한다. 그리고 최소 대립어를 가능하게 하는 분절음들을 음소(phoneme)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소는 자체적으로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최소 단위(minimal unit)인 것이다. 이러한 분절음, 즉 음소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변이음(variants)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변이음을 이음(allophone)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성대의 울림이 없으며 동시에 설단이 치경(alveolar ridge)부분에 닿게 되면서 공기의 흐름이 변하게 되어 만들어지는 소리인 무성 치경 파열음(voiceless alveolar stop)인 /t/는 'top'에서처럼 단어의 맨 앞에 위치할 때는 기식음(aspirated sound)이 되고, 'cot'에서처럼 단어의 맨 뒤에 올 때는 성문음(glottalized sound)이 된다.²⁾ [t^hop와 cot^ʔ]. 기식음은 우리들이 촛불을 끌 때 공기를 갑자기 내뿜는 것과 같은 공기흐름을 동반하는 소리를 지칭하며, 성문음은 우리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었다가 풀 때 이용되는 공기흐름이 수반되는 소리를 나타낸다. 또한, /t/음은 환경에 따라 기식음이나 성문음이 아닌 탄설음(flap) [ɾ](또는 [D]로 표기)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wri[ɾ]er(writer). 이러한 변이음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환경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탄설음은 강세를 가지는 모음과 강세를 가지지 않는 모음 사이에서만 나타나고, 기식음은 단어의 맨 앞에서만 구현되고, 성문음은 단어 말(word-final)에서만 발음된다.³⁾ 이렇게 변이음들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분포되기 때문에,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보인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이음들은 공통적인 음소의 구현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즉, 변별적 자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영어의 음소에는 /p, b, t, d, k, g, f, v, θ, ð, s, z, ʃ, ʒ, tʃ, dʒ, m, n, l, r, y, w, i, i, e, ε, æ, u, u, o, ɔ, a/ 등이 있는데, /p, b, t, d, k, g, f, v, θ, ð, s, z, ʃ, ʒ, tʃ, dʒ, m, n, l, r/ 등은 자음(consonant)이고 /i, i, e, ε, æ, u, u, o, ɔ, a/ 등은 모음(vowel)이며, /y, w/는 반모음(semi-vowel)이다.

지금까지 음성학의 기본개념을 이용해서 영어의 분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절음이 영어발음교육의 중요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영어발음교육을 위해서는 영어음성학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2) 일반적으로, 음성학이나 음운론 관련 책이나 논문에서는 음소를 '/'로 표시하고 음소에 대한 변이음을 나타낼 때는 '[']로 표시한다.

3) 파열음의 변이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4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다음 절에서는 영어발음교육의 또 다른 주요 영역인 강세에 대해서 살펴 보면서, 강세의 이해를 위해서는 영어음운론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강세는 리듬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강세와 리듬을 구별없이 쓰고자 한다.

IV. 영어 강세와 영어음운론(English Phonology)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겪게되는 영어 발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먼저, 왜 한국인 학습자에게 영어 발음의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대답은 영어에는 강세가 중요한 자질인데 반해서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 발음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영어 강세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영어 강세에 대한 이해와 습득은 단순히 암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우선, 영어의 기본 음절구조(syllable structure)가 어떠한 것이며, 음절구조와 강세가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강세와 음절구조가 영어의 다양한 음운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야 한다. 즉, 이론적인 설명이 없는 영어 발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분석된 영어 강세와 이와 관련되는 음운현상들에 대한 규칙이나 제약을 이해하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의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그 단어가 갖는 강세의 위치와 리듬 그리고 음운적 행태를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어민(native speaker)에 가까운 영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 강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강세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강세는 영어에서 변별적인 자질(feature)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강세의 차이에 의해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illow와 below는 발음에 있어서 분절음에는 차이가 전혀 없지만 강세의 위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강세의 차이에 의해서 각각 다른 단어로 발화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전자는 첫째 음절(syllable)에 강세가 있고, 후자는 둘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 강세가 영어에서 변별적이라는 것은 강세의 위치에 따라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가 달라진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

다. 예를 들면, 첫 음절에 강세가 오는 *áb.stract*, *pér.vert*, *cón.vict* 등은 명사 (noun)인 반면, 둘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ab.stráct*, *per.vért*, *con.víct* 등은 동사 (verb)이다. 음절이란 분절음들의 묶음으로서, 두음 (onset), 핵음 (nucleus), 각음 (coda)으로 구성되는데, top에서 /t/는 두음이고 /a/는 핵음 그리고 /p/는 각음이다. 단어는 하나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mem.ber'는 두 음절, A.me.ri.ca는 네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음절들은 강세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음운론적 단위이다. 음절은 무게 (weight)에 따라, 경음절 (light syllable)과 중음절 (heavy syllable)로 나뉘어 진다. 경음절은 단모음 (short vowel)을 핵음으로 가지면서 각음을 가지지 않는 음절을 말하고 (예: the, a), 중음절은 sea와 cat에서와 같이 중모음을 핵음으로 가지거나, 아니면 단모음을 핵음으로 가지면서 동시에 각음을 가지는 음절을 지칭한다. 음절 무게를 나타낼 때 모라 (mor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경음절은 하나의 모라를 가지고, 중음절은 두 개의 모라를 갖는다고 말한다.

영어 강세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영어의 강세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생각해 보자. 이 물음에 대해서 Chomsky & Halle (1968) 이후의 영어 강세에 대해서 연구해온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래 (1)에 보이는 단어들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명사에 국한하도록 한다.

- (1) ㄱ. agenda; veranda; Toronto; utensil; amalgam
- ㄴ. volcano; horizon; aroma; salami; tomato
- ㄷ. America; monopoly; politics; cinema

위 (1)에 있는 단어의 강세위치는 아래 (2)에 표시해 놓은 것과 같다.

- (2) ㄱ. a.gén.da; ve.rán.da; To.rón.to; u.tén.sil; a.mál.gam
- ㄴ. vol.cá.no; ho.rí.zon; a.ró.ma; sa.lá.mi; to.má.to
- ㄷ. A.mé.ri.ca; mo.nó.po.ly; pó.li.tics; cí.ne.ma

이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사의 강세에 대한 몇 가지 규칙성 (regularity)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어말 (word-final)에서 두 번째 음절 (penultimate syllable; penult)이 중음절이면 그곳에 강세가 온다. 이 규칙성은 위 (2ㄱ, ㄴ)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어말로부터 두 번째 음절이 경음절이

면, 강세는 끝에서 세 번째 음절(antepenultimate syllable; antepenult)에 온다. (3c)과 같은 예들이 이러한 규칙성을 잘 보여준다. 셋째, 단어의 마지막 음절(ultimate syllable)에는 강세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음절표시는 시그마(σ)로 하며, 음절에 대한 순서매김은 어말로 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내며 어말은 '#'로 표시한다. 그리고 해당 음절이 강세를 부여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각괄호로 표시한다. 따라서 세 번째 규칙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gma_4 \sigma_3 \sigma_2 \langle \sigma_1 \rangle \#$.

영어강세에 대해 좀 더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우선, 음운론 이론에서 강세는 음절을 음보(foot)로 묶어서 나타내 보이는 과정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강세에 대한 이해는 결국 하나의 단어가 어떠한 음보로 구성되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 음보는 여기서 괄호로 나타낸다. 영어에서는 두 개의 모라가 하나의 음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무표적(unmarked)인 음보이다. 따라서, 중음절은 그 자체가 두 모라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음보가 될 수 있고, 경음절은 하나의 모라를 가지기 때문에 두 개의 음절이 되어야 하나의 음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밝혔듯이, 영어의 명사는 끝 음절은 음보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음보가 형성되었을 때, 영어는 (강 약)의 구조를 가지는 trochee를 기본 음보로 삼는다. 참고로 Shakespeare시기의 영어에서는 (약 강)의 구조인 iamb이 기본적인 음보였다.

이러한 음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영어의 강세 위치를 쉽게 포착할 수 있는데, 아래 (3)에 구체적인 예가 있다. 마지막 음절은 음보형성에서 제외되며, 두 개의 모라가 하나의 음보를 형성하고, 하나의 음보에서 왼쪽에 있는 구성원이 강하게 된다.

- (3) ㄱ. A(mé.ri)ca,
 $\sigma_4 (\sigma_3^L \sigma_2^L) \langle \sigma_1 \rangle \#$
 | | | |
 A me ri ca
 CV CV
- ㄴ. a(gén)da, vol(cá)no
 $\sigma_3 (\sigma_2^H) \langle \sigma_1 \rangle \#$ $\sigma_3 (\sigma_2^H) \langle \sigma_1 \rangle \#$
 | | | | | | | |
 a gen da vol ca: no
 CVC CVV

이와 같이 영어 음운론의 이론을 이용해서 영어 강세의 위치와 패턴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발음교육의 주요한 영역중의 하나인 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음운론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강세는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강세가 분절음의 발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볼 때, 모음약화(vowel reduction), 기식음화(aspiration), 탄설음화(flapping) 등과 같은 음운현상이 모두 강세와 관계가 있다.

우선, 모음약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강세가 있는 음절의 핵음 역할을 하는 모음은 원래의(underlying) 음가(value; quality)를 유지하는 반면, 강세가 없는 음절의 모음은 약화된(reduced) 모음인 schwa로 변한다.⁴⁾ 이렇게 모음은 강세 유무에 따라 교체현상(alternation)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atom에서 첫 음절의 모음은 강세가 있어서 원래의 음가인 [æ]가 발음되지만, 둘째 음절은 강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음절의 핵음이 schwa [ə]로 발음된다. 하지만, 환경이 달라져서 강세의 위치가 달라질 때, 예컨대, 형용사형 접미사 -ic가 첨가된 'atomic'이 되었을 때, 강세는 둘째 음절에 오는데, 이 경우에는 첫째 음절의 핵음은 schwa [ə]로 나타난다. 하지만, 둘째 음절의 핵음은 원래의 음가인 [ɑ]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아래 (4)에 보이는 바와 같다.⁵⁾

- | | |
|-------------|-------------------------|
| (4) ㄱ. atom | [æ' t ə m] |
| ㄴ. atomic | [ət ^h ɑ'mic] |

이렇게 강세의 변화에 따라 모음의 음가가 약화되어 나타나는 모음약화 현상은 아래 (5)의 예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영어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밑줄 친 모음이 강세를 가지는 음절의 핵음인 경우는 원래의 음가가 발음되고 강세를 가지지 않는 음절의 핵음인 경우는 원래의 음가를 상실해서 schw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Chomsky & Halle(1968) 이후에 표면형(surface form)과 기저형(underlying form)이라는 두개의 표기(representation)를 상징하는 것은 음운론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 (4)에서 보이는 자음의 교체현상인 기식음화와 탄설음화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5) <u>de</u> fine	[ay]	대	de <u>fi</u> nition	[ə]
<u>su</u> per	[uw]	대	su <u>pe</u> rior	[ə]
<u>ab</u> le	[ey]	대	<u>ab</u> ility	[ə]
<u>ex</u> plain	[ey]	대	ex <u>pl</u> anation	[ə]
<u>so</u> ber	[ow]	대	<u>so</u> br ety	[ə]
mo <u>me</u> ntous	[e]	대	mo <u>me</u> nt	[ə]
mo <u>na</u> rch	[ɔ]	대	mo <u>na</u> rchic	[ə]
Ca <u>na</u> da	[æ]	대	Ca <u>na</u> dian	[ə]
<u>ha</u> bit	[æ]	대	<u>ha</u> bitual	[ə]
co <u>ll</u> ege	[ɑ]	대	co <u>ll</u> egiate	[ə]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trochee인 음보에서 약한 위치에 오는 음절의 모음은 약화시켜라' 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을 영어 원어민들은 언어능력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소한 단어에 직면하더라도 이 규칙을 통해서 강세가 없는 모음은 약화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을 언어능력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를 만났을 때 강세가 없는 모음이 약화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음을 생성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영어 발음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교육자는 피교육자에게 이러한 음운규칙을 가르쳐야만 영어모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영어 발음 교육과정에서도 영어음운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측된 발음 — 이 경우에는 비강세음절에서의 약화된 모음 — 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분절음 생성(production)에 관한 것으로서 영어음성학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측과 생성 즉, 음운론과 음성학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식음화 현상이 어떠한 측면에서 강세현상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p, t, k/와 같은 무성 파열음(voiceless plosives)은 suppórt, mórtálity, cápon 등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강세가 있는 음절의 두음의 위치에 오면 기식음 [p^h, t^h, k^h]가 된다. 강세를 나타내는 음운론적 단위인 음보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mortality의 경우를 보면, 이 단어의 음보구조는 mor(tá.li)ty이다. 따라서 무성음 /t/가 소속되어 있는 음절 ta-가 음보의 강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무성음은 기식음 [t^h]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mortality와 관계되는 mortal의 경우를 보면, 이 단어의 음보구조는 (mór)tal이다. 즉, 중음절인 첫째 음절이 혼자서 음보를 형성하고 있고, 둘째 음절은 음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무성음 /t/는 기식음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강세가 없는 관계로 약화되어서 혀의 끝부분을 치경부에 살짝 찻다가(flapping) 떨어뜨리면 나오게 되는 소리인 탄설음 [ɾ]로 발음된다. 따라서 기식음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성 파열음이 강세를 가지는 음절의 두음의 위치에 올 때 기식음으로 발음하라'라는 음운규칙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음운규칙의 습득은 영어 원어민과 마찬가지로 기식음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기식음을 적재적소에서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예측능력과 생성능력 향상은 원어민이 생성해내는 기식음에 대한 지각(perception)도 용이하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탄설음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자. 기식음화와는 다르게 탄설음화는 강세를 가지지 않는 음절에서 일어난다. 앞에서 언급된 atom[æ'təm]에서처럼, 강세가 오지 않는 음절의 두음인 무성 파열음은 탄설음이 된다. 이러한 탄설음화의 예는 bu'tter, ci'ty, wri'ter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음보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음보의 약한 위치에 오는 음절의 두음은 약화시켜라'하는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의 습득을 통해서 탄설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이 예측된 음에 대한 발음은 이 음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게 되면 원어민과 마찬가지로 탄설음을 적절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강세에 대한 이해는 영어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어에서 강세와 분절음의 발음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밀접한 관련성은 음운규칙을 통해서 예측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예측은 영어의 분절음을 더 정확하게 발음하고, 더 확실하게 지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음 절에서는 영어발음교육의 세 번째 영역인 문장에서의 억양과 영어음운론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V. 영어 억양과 영어음운론

억양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 문장 강세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어 강세는 하나의 단어에 국한된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문장을 발음할 때에도 강세는 있다. 한 문장을 형성하는 모든 단

어들을 동일하게 강하게 발음하거나 약하게 발음하지는 않는다. 한 문장을 발음할 때, 어떤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하고 어떤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음한다. 예를 들어, Jane is so beautiful이라는 문장을 발음할 때, 보통의 경우 Jane과 so, beautiful을 강하게 발음하고 is는 약하게 발음한다. 이때, 문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는 강세를 문장 강세(sentence stress)라고 부른다.

영어에서 문장 강세를 가지는 단어는 보통 내용어(content words)이다. 내용어로는 명사(Jane, teacher, hour, rose, apartment), 동사(deliver, plant, eat, like, imagine), 형용사(full, red, beautiful), 부사(so, daily, here), 지시사(this, that, these, those), 의문사(who, when, why)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문장 강세를 가지지 못하는 단어는 기능어(function words) 들인데, 관사(a, an, the)나 전치사(on, in, to), 인칭대명사(I, he, she, you), 소유격 형용사(my, his, your), 관계대명사(who, which, that), 접속사(and, as, but, if), 조동사(be, have, do, can, may, will, shall, could, might, would, should) 등이다. 이와 같이 단어의 구별에 따라서 문장 강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Prator & Robinett(1985:29)가 언급한 바대로, 영어는 강세단위(stress-timed)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 강세를 받는 음절 사이에는 그 사이의 음절 수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동일한 시간적 간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아래 (6)에 있는 문장을 발음해 보자. 이 예들은 Prator & Robinett(1985:30)에서 인용한 것이다.

(6) ㄱ. The bóy is interested in énlarging his vocábulary.

ㄴ. Gréat prógress is máde dáily.

이 두 문장은 문장 강세가 있는 음절 사이에 있는 음절의 수에 상관없이 같은 간격으로 문장 강세가 발음된다. 따라서 같은 시간 내에 두 문장이 발음된다. 문장 강세 부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7)의 문장들은 어디에 문장 강세가 오는가?

(7) ㄱ. This red rose is to be planted here.

ㄴ. He eats three full meals each day.

ㄷ. I shall deliver it to you.

위에 있는 문장들의 문장 강세의 위치는 아래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지시사와 형용사, 명사, 동사, 그리고 부사들은 내용어이기 때문에 문장 강세를 가지지만, be동사나 전치사 인칭대명사 등은 문장 강세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문장 강세의 부여 원칙에 의해서 영어의 문장 강세가 결정된다.

- (8) ㄱ. This réd róse is to be plánted héré.
 ㄴ. He éats thrée fúll méals éach dáy.
 ㄷ. I shall deliver it to you.

문장 강세 부여 원칙에 대한 이해는 영어 문장의 발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어의 문장이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만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어에서의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인 강세충돌 회피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리듬감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문장을 다시 인용해 보자:

- (9) ㄱ. This réd róse is to be plánted héré.
 ㄴ. He éats thrée fúll méals éach dáy.

위에서 살펴본 문장 강세 부여 원칙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문장 강세를 가지는 음절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강세충돌(stress clash)이 일어난다:

- (10) ㄱ. This réd róse ...
 ㄴ. ... éats thrée fúll méals éach dáy.

이러한 강세충돌은 실제 영어 발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학자들 예컨대, Liberman & Prince(1977), Kiparsky(1979), Halle & Vergnaud(1987) 등은 이러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rule)이나 제약(constraint)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위 (10)에서 나타나는 강세충돌을 회피하면서 리듬감 있는 발음을 하면 아래 (11)에 보이는 바와 같다.

- (11) ㄱ. This red róse is to be plánted héré.
 ㄴ. He eats thrée full méals each dáy.

리듬감 있는 발음은 강세충동을 회피하는 경우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강세가 없는 음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나타난다. 아래 (12)와 같은 예를 생각해 보자. (12ㄱ)에서는 동사인 deliver 다음에 오는 단어들은 모두 기능어이기 때문에 문장 강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문장 강세는 deliver에서부터 보면, [강약약약]이 된다. 이것을 (12ㄴ)처럼 하면, [강약강약]이 되어 리듬을 보여주게 된다.

(12) ㄱ. I shall deliver it to you.

ㄴ. I shall deliver it tó you.

강세가 연이어 나타나는 강세충동을 막아 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위 (12)에서와 같이 강세 없는 음절이 계속되는 것(lapse)을 막아 주는 방법으로서도 리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 강세와 리듬 그리고 이들의 상관성은 영어 음운론의 이해를 통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문장 강세와 억양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억양의 변화는 문장 강세가 있는 음절에서 일어난다. 억양이란 음의 선율(melody), 가락(tune), 또는 음색(note)을 의미하는데, 억양이 없는 영어발음은 그저 단조로운 음의 연속에 불과하게 된다. 아래 (13)의 예를 통해서 억양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문들을 아무런 억양 없이 발음하면, 완전히 영어의 발음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어 뜻이 쉽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13) ㄱ. Good morning.

ㄴ. What is your name?

또 억양을 사용하여 발음할 경우에도 문장 강세와 상관없이 할 경우에 부자연스러운 영어발음이 된다. (13ㄱ)에서 문장 강세는 원칙상으로는 good이라는 단어와 morning이라는 단어의 첫 음절에 올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리듬규칙에 의해서 morning의 첫 음절에만 문장 강세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억양은 반드시 강세를 가지는 음절에서만 구현된다. 강세가 없는 음절에 억양이 나타나면 매우 이상한 영어발음이 된다. 예를 들어, morning의 둘째 음절에서 선율변화가 있으면, 이 발음은 영어 원어민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리게 된다.

(14) Good morning

문장 강세에 억양이 오더라도 어떠한 패턴의 억양이나에 따라 그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분절음으로 구성된 구문이 상승조(rising)의 억양을 문장 강세에 가지는 경우(15ㄱ)와 상승-하강조(rising-falling)의 억양을 문장강세가 가지는 경우(15ㄴ)는 그 의미하는 바가 달라진다. 보통의 경우는 (15ㄴ)과 같은 억양을 갖는다.

(15) ㄱ. Good morning

ㄴ. Good morning

문장 강세를 여러 개 가지는 문장에서는 그 문장 강세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곳에 억양이 나타난다. 따라서 아래 (16)의 경우에 문장 강세는 saw와 blackbird에 오는데 이 중에서 억양은 blackbird에 나타난다.

(16) He saw a blackbird.

영어의 억양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위 (15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상승조와 (15ㄴ)과 같은 상승-하강조(rising-falling)이다. 이러한 억양 패턴을 표기의 편의상 숫자로 나타내기도 한다. 상승조는 2-3 그리고 상승-하강조는 2-3-1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기준선은 2로 표시된다.

(17) 영어의 억양패턴

ㄱ. 상승조 (2-3)

ㄴ. 상승-하강조 (2-3-1)

상승조인 억양은 일반적으로 가부(yes/no)를 묻는 의문문(interrogative sentence)에서 나타나고 상승-하강조는 일반적으로 평서문(declarative sentence)이나 명령문(imperative sentence) 그리고 의문사를 가지는 의문문에 나타난다.

(18) 억양패턴과 문장종류

ㄱ. 상승조: 단순 의문문

ㄴ. 상승-하강조(2-3-1): 평서문, 명령문, 의문사 의문문

이러한 문법적 억양패턴 이외에도 감정적인 억양(emotional intonation) 패턴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 화자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법(grammar)의 범위에 넣기는 어렵다. 또한 복잡한 문장에서는 상승조와 상승-하강조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억양패턴은 상승조와 상승-하강조라는 점에는 영어 음성학자나 음운론학자들 간에 이의가 없다.

분절음과 강세와 마찬가지로, 억양도 영어 화자의 언어능력의 일부이다. 따라서, 억양패턴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서 문장의 발음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 것을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억양에 대한 언어능력으로 화자의 발음을 쉽게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억양에 관한 규칙을 습득함으로써 영어발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억양도 영어음운론의 주요한 연구분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억양에 관한 이해가 영어음운론의 이해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영어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영어발음교육이라는 전제하에 영어발음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에 대한 이해가 영어발음교육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I절에서는 왜 영어발음교육을 중요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II절에서는 영어발음교육의 영역에는 분절음과 강세/리듬, 그리고 억양등 세 영역이 있고, 이러한 영역들을 배양함으로써 영어 발음의 패턴에 대한 예측과 생성, 그리고 지각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제III절에서는 영어분절음의 생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영어음성학의 이해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영어의 분절음을 만들어 내는데 이용되는 음성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절에서는 음성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영어음성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더듬어 보았다. 제IV절에서는 영어에서 강세가 변별적 자질의 역할을 하고 또한 규칙성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절에서 영어강세와 분절음의 음운현상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그 상관성을 포착하는 규칙들이 있으며 이 규칙들을 습득하는 것이 바로 영어발음을 예측하고 향

상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V절에서는 억양에 대한 이해가 영어발음을 제대로 하는데 중요하다는 것과 억양에 있어서도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억양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인 문장강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영어발음교육에서 이론적인 측면을 단지 현학적인 것으로만 치부해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발음교육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론과 실제의 자연스런 융합이 영어발음교육의 현장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발음교육에서의 이론적인 측면은 바로 영어 음성학과 음운론의 여러 이론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전상범. 1995. 영어음성학 개론. 을유문화사.
- Bronstein, A. J. 1960.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 An Introduction to Phonetics*. Appleton-Century-Crofts, Inc..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and Row, New York.
- Dickerson, W. B. 1992. *English Phonology and Morphology for ESL Teachers*. M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 Gimson, A. C. 1980.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3rd Edition. Edward Arnold, London.
- Halle, M. and J.-R. Vergnaud. 1985. *An Essay on Stress*. MIT Press, Cambridge.
- Kenstowicz, M. 1994.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Blackwell, Cambridge, USA, & Oxford, UK.
- Kiparsky, P. 1979. "Metrical structure assignment is cyclic," *Linguistic Inquiry* 10: 421-442.
- Ladefoged, P. 1993.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Atlanta: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Liberman, M. and A. Prince. 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8: 249-336.
- Prator, C. H. and B. W. Robinett. 1985.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Harcourt Brace & Company. Orlando.